

이혼경험 여성의 성인애착과 이혼 후 성장과의 관계: 회복탄력성을 통한 사회적 지지의 조절된 매개효과*

설 윤 정

데이브레이크대학교
부부가족상담대학원

함 경 애†


연세대학교
심리과학이노베이션 연구소

본 연구는 이혼경험 여성을 대상으로 성인애착과 이혼 후 성장과의 관계에서 회복탄력성이 매개하는지를 확인하고, 성인애착이 회복탄력성의 매개에 의해 이혼 후 성장으로 가는 경로에서 사회적 지지의 조절효과 여부를 확인하고자 했다. 이를 위해 20~60대 이혼경험 여성 226명을 대상으로 성인애착, 외상 후 성장, 회복탄력성, 사회적 지지를 측정하는 척도로 설문조사를 실시하였고, 이 중 총 176명의 자료를 SPSS 21.0을 활용하여 분석하였다. 본 연구의 주요 연구결과는 다음과 같다. 첫째, 불안애착과 회피애착은 회복탄력성, 사회적 지지, 이혼 후 성장에 부정적인 영향을 미쳤고, 회복탄력성과 사회적 지지는 이혼 후 성장에 정적인 영향을 미쳤다. 둘째, 회복탄력성은 불안애착과 이혼 후 성장의 관계를 완전매개한 반면, 회피애착과 이혼 후 성장의 관계는 부분매개하였다. 셋째, 사회적 지지는 회복탄력성과 이혼 후 성장의 관계를 조절하였다. 넷째, 불안애착과 회피애착은 이혼 후 성장의 관계에서 회복탄력성을 통한 사회적 지지의 조절된 매개효과를 보였다. 이 연구결과를 바탕으로 의의와 상담에서의 시사점을 논의하였고, 연구의 제한점을 바탕으로 후속연구를 위한 제언을 제시하였다.

주요어 : 이혼경험 여성, 성인애착, 이혼 후 성장, 회복탄력성, 사회적 지지

* 본 논문은 설윤정의 박사학위논문을 수정 및 보완한 것임.

† 교신저자: 함경애, 연세대학교 심리과학이노베이션 연구소, (03722) 서울특별시 서대문구 연세로 50,
E-mail: hahm97@hanmail.net

 Copyright © 2022, The Korean Society for Woman Psychology. This is an Open Access article This is an open-access article distributed under the terms of the Creative Commons Attribution -NonCommercial Licenses (<https://creativecommons.org/licenses/by-nc/4.0>) which permits unrestricted non-commercial use, distribution and reproduction in any medium, provided the original work is properly cited.

우리 모두는 생애과정 속에서 예상치 못한 여러 상실이나 죽음, 재난과 같은 사건과 사고를 경험한다. 그 중 하나인 이혼은 개인의 삶에 커다란 변화를 주며, 삶을 단절시키거나 새로운 적응을 하도록 만드는 위기사건이다(이해경, 2014). 그럼에도 현재 우리나라의 이혼율은 상당히 높은 편이다. 이를 반영하듯, 국내 이혼 건수는 최근 10년 동안 연 10만 건 이상으로 유지되고 있고(통계청, 2020), 한국의 이혼율은 OECD 평균인 1.9명보다 높은 2.1명으로, 1991년 1.1명보다 2배 상승한 수치를 보여주고 있다(OECD, 2019). 이는 산업화 및 도시화로 전통적 가족주의는 약화되고 남녀평등의식은 강화되어 전반적인 가족의 기능이 약해지는데다가 경제문제로 가족갈등은 심화되는데 여성의 사회적 및 경제적 지위는 상승되고 동시에 이혼 관련법 및 제도까지 변화됨으로 인해 나타나는 현상이라고 볼 수 있다(최선화, 오영란, 2018).

이혼은 부부가 결혼으로 인해 발생한 문제들에 대한 해결책이자(박귀영, 2008), 불행한 결혼생활에 대한 대안(박상진 외, 2009)으로 간주되기도 하지만, 그럼에도 이혼은 결혼생활과 가족관계가 중단되어 가족관계가 해체되고 가족구성원들에게 중대한 변화가 일어나는 사건이고(이경희, 2014), 가족구성원 모두에게 상당한 고통과 부적응적인 양상을 수반하게 된다. 다시 말해 이혼은 사별 다음으로 가장 큰 스트레스 사건이므로(Holmes & Rahe, 1967), 사별에 의한 상실만큼이나 많은 사람들이 매우 고통스러워하는 경험으로(서영석, 조화진, 안하얀, 이정선, 2012), 때로는 사별에 의한 상실보다 적응이 더 힘들 정도로(임선영, 권석만, 2012; 최선재, 2011), 매우 심각한 위기사건이고(송승훈, 2007), 심각한 심리적 외상을 남기

는 대인관계 외상에 해당된다(Godleski, 2010; Joseph, 2018).

특히, 이혼은 성별화된 경험으로(정현숙 외, 2020), 여성의 이혼이 남성의 이혼보다 더 부정적으로 인식되는 경향이 있고, 실제 이혼여성이 훨씬 더 힘겨운 삶을 살아간다(옥선화, 남영주, 강은영, 2006). 이는 국내 이혼여성 관련 여러 연구에서 잘 보여주고 있다. 예컨대, 가족기능과 부모역할의 변화(장혜경, 민가영, 2002), 자녀양육 문제(김혜선, 김은하, 2010), 자녀에 대한 죄책감(박태영, 2007), 재취업 문제와 저임금으로 인한 생계부양의 어려움(김정현, 2012) 등으로 매우 힘든 시간을 보내는 것으로 나타났다. 더욱이 미성년자를 양육하는 이혼여성은 자녀양육과 관련된 다양한 어려움에 직면하고(여성가족부, 2015; 장혜경, 민가영, 2002), 역할과중에 따른 초기 적응의 어려움도 많다고 보고된다(윤정연, 유미숙, 2018). 이를 근거로 볼 때, 여성에게 이혼은 여러 측면에서 심각한 영향을 받게 되어 힘들고 고통스러운 과정을 경험하게 되는 외상사건임에 틀림이 없다.

그런데 이혼이 이러한 상당한 고통을 수반하는 외상사건임에도 불구하고 실제 이혼을 경험한 사람 중에는 이혼 전의 기능 이상으로 성장을 경험하는 사람도 존재한다(전현규, 2019). 이렇듯 외상을 경험한 사람 중에는 외상 후 스트레스 장애를 경험하기도 하지만 오히려 외상 후 성장을 경험하기도 한다. 이에 Tedeschi와 Calhoun(1995, 1996)은 외상을 경험한 이후에 나타나는 여러 가지 긍정적 변화들에 중점을 둔 연구를 진행하여, 외상 후 성장(posttraumatic growth) 이론을 발표했다. 이후 전반적으로 외상의 범위가 광범위해지면서 정서적인 상처를 겪는 이혼, 관계상실, 이별의

고통 등에도 적용됨으로써(송승훈, 이홍석, 박준호, 김교현, 2009; 이동훈, 이수연, 윤기원, 최수정, 김시형, 2017; 주인석, 김명찬, 이현진, 2020; Joseph, 2018; Maiberger, 2018), 이혼을 고통과 스트레스의 관점이 아닌 성장의 관점으로 새롭게 재조명해볼 수 있게 되었다.

사실 그 동안 이혼 관련 연구들은 주로 부정적 관점으로 접근하려는 경향이 강했고, 자립이나 적응을 다룬 연구들조차도 성장의 개념이 배제되어 편향된 측면이 있었으나, 최근 연구는 이혼 이후의 삶에 대해 긍정적 성취 및 성장의 관점으로 보고하는 추세로 변화되고 있다(김서현, 원종아, 2020; 오은규, 2019; 최은화, 이윤화, 2010). 이는 앞에서 언급한 외상 후 성장 이론과 무관하지 않을 것이다. 즉 외상 후 성장 개념이 외상을 새로운 관점에서 바라보도록 하는 것이므로, 이혼 후에 경험하는 삶의 과정에도 이 관점을 적용해본다면, 이혼으로 인한 상처와 고통을 제거나 치유의 요소로만 한정 짓기보다는 성장을 위한 촉매제로 확장해서 볼 수 있을 것이다. 그러므로 본 연구에서는 이혼이라는 외상경험 후에 나타나는 긍정적인 변화와 성장에 영향을 미치는 변인들, 그리고 그 변인들 간의 상호작용에 초점을 맞추어 살펴보고자 한다.

외상 후 성장 과정에 영향을 주는 대표적인 개인적 특성 중 하나가 성인애착이다(McElheran et. al., 2012). 애착은 생애 초기 주 양육자와의 관계에서 형성된 정서적 유대감으로, 양육자와의 반복된 상호작용을 통해 내적 작동모델이 형성된다(Bowlby, 1958). 즉, 주 양육자가 유아의 신호에 민감하게 반응하고 보살피면 유아는 긍정적인 내적 작동모델이 형성되고(Lopez & Snyder, 2003), 비밀관적이거나 권위주의적인 양육을 하면 부정적인 내적 작

동모델이 형성된다(Holmes, 1993). 이렇게 형성된 내적 작동모델은 개인이 자신과 타인에 대해 기대와 신념 및 상황에 맞는 해석을 하도록 만들며, 대인관계에도 영향을 미친다(Bowlby, 1973). 그런데 어릴 때 형성된 애착을 바탕으로 성인기에 자신과 밀접한 사람들로부터 경험한 강한 정서적 유대관계를 형성하게 되는데, 이를 성인애착이라고 한다(정지양, 2015). 성인애착은 주 양육자 외에 어떤 대상이 친밀감과 지지체계로 작용하게 되면서 주요 애착대상이 교체되고(Overbeek, Vollebergh, Engels, & Meeus, 2003), 심리적, 신체적 안정감을 제공하는 연인이나 배우자와 같은 특정 대상과 정서적 유대감을 유지하려는 경향성을 갖는다(Sperling & Berman, 1994). 그래서 성인애착은 대인관계에서 경험하는 개인의 심리적인 반응을 설명할 때 자주 쓰이고(Mikulincer, Shaver, & Horesh, 2006), 낭만적 관계의 형성과 유지 및 종결을 이해하는 데 활용된다(Marshall, Bejanyan, & Ferenczi, 2013).

특히, 개인이 대인관계 외상으로 고통을 경험할 때 구체적으로 드러나게 되는 성인애착은(Taylor, Mann, White, & Goldberg, 2000), 외상 경험 시 자신의 중요대상에게 도움을 요청할지 여부와 그에 따른 행동에 영향을 미치므로, 성인애착과 외상 후 성장은 관련이 있다고 볼 수 있다(Coates, Rosenthal, & Shechter, 2003). 이를 반영하듯, 불안애착과 회피애착 모두 외상 후 성장에 부적인 영향을 미친다고 보고했다(김경은, 정남운, 2018; 김태사, 안명희, 2013; 서보미, 2020; 성순이, 김혜란, 2018). 이는 불안애착과 회피애착이 높을수록 외상 후 성장에 어려움이 있을 수 있음을 의미한다. 그런데 어떤 연구에서는 회피애착은 부적인 영향을(김진수, 서수균, 2011), 불안애착은 유의하

지 않거나(박혜림, 2019), 회피애착보다 부적인 영향이 낮다고 보고하여(김은미, 이종연, 2015) 성인애착 차원에 따른 외상 후 성장과의 관계를 보는 연구에서 그 결과가 일관적이지 않게 나타났다. 이와 더불어 성인애착이 외상 후 성장에 영향을 미치는 경로가 직접적인지 간접적인지에 대해서도 연구마다 차이가 있다(김경은, 정남운, 2018; 김은미, 이종연, 2015; 김진수, 서수균, 2011; 심원경, 2020). 이러한 상이한 결과들은 이혼여성의 성인애착이 이혼 경험 후 심리적 성장의 과정에서 매개변인에 의해 성장 여부와 수준이 달라질 수 있고 성인애착 차원에 따라서도 매개효과가 다를 수 있음을 짐작케 한다.

Tedeschi와 Calhoun(2004)는 회복탄력성이 높을수록 외상에 대해 상대적으로 덜 도전 받기 때문에 외상 후 성장에 매우 중요한 변인 중 하나가 회복탄력성이라고 했다. 회복탄력성(Resilience)은 개인이 직면한 역경과 어려움을 오히려 성장의 발판으로 삼아 역경을 극복하는 힘을 말한다(김주환, 2011). 그리고 시간의 흐름에 따라, 그리고 개인이 환경과 상호작용을 하는 과정에서, 혹은 학습을 통해 점진적인 변화가 가능한 특성을 지녔다(정은주, 2017; Dyer & McGuinness, 1996; Secombe, 2002). 이러한 회복탄력성은 여러 연구를 통해 외상 후 성장에 직접적으로 영향을 미치는 것으로 나타났다(강현아, 2019; 김혜진, 서경현, 2016; 박보경, 2013; 유희정, 2012; 정경임, 전혜성, 2020; 차혜지, 2019). 특히, 사별 경험이 있는 성인, 암 생존자, 신생아 중환자실에 입원 경험이 있는 미숙아 어머니 등의 회복탄력성이 외상 후 성장에 유의한 영향을 미친다고 보고했다(박서정, 2017; 박정숙, 김유정, 유영선, 박미향, 2018; 이현수, 2019; 조진희, 정문

경, 2020). 이와 더불어 심수연과 김용수(2015)는 불안정 성인애착(회피, 불안)과 회복탄력성의 부적인 관계를 확인하였고, 이 외의 연구들에서도 동일한 보고를 했다(김다혜, 2010; 김명진, 2019; 정철상, 2021). 이양궁(2015)도 불안애착과 회피애착이 서로 다른 내적 작동 모델을 가지고 있지만 두 차원 모두 그 수준이 높을수록 회복탄력성은 낮아진다는 보고를 하여, 성인애착이 회복탄력성에 영향을 미치는 것으로 추정된다.

또한 성인애착에 대한 회복탄력성의 매개효과를 다룬 여러 연구에서 매개효과의 유의미한 결과들을 보고했다. 예컨대, 대학생의 성인애착과 진로 결정과의 관계에서, 혹은 불안애착 및 회피애착과 대인관계능력과의 관계에서 회복탄력성의 매개효과를 밝혔고(박인영, 2015; 정해기, 2018), 심수연과 김용수(2015)는 불안정 성인애착과 생활스트레스에서 회복탄력성의 부분매개효과를 밝혔다. 특히, 김민석(2019)은 성인애착과 정신건강과의 관계에서 회복탄력성이 불안애착의 경우엔 부분매개하고, 회피애착은 완전매개한다고 밝혀, 성인애착 차원에 따라 회복탄력성의 매개효과가 다르게 나타날 가능성을 시사하고 있다. 따라서 성인애착은 회복탄력성에 영향을 미치고, 회복탄력성은 성인애착과 외상 후 성장 사이에서 매개역할을 하되, 성인애착 차원에 따라 그 매개효과가 다를 수 있음을 짐작해볼 수 있다.

한편, Tedeschi와 Calhoun(2004)은 외상 후 성장 모델에서 외상 이후 긍정적 변화를 예견하는 요인 중 하나로 사회적 지지를 꼽았다. 사회적 지지는 안녕감과 건강을 증진하는 개인의 사회적 관계망의 다양한 특성을 포괄하는 광범위한 단어로(Cohen, Underwood, & Gottlieb, 2000), 일상생활에서 실제 제공되는 지지의 정

도와 더불어 타인과 사회적 관계망을 통해 평가적, 정보적, 물질적, 정서적인 지지를 제공할 수 있다는 지각의 정도를 포함한다(박지원, 1985). 개인은 사회적 지지를 통해 자신이 처한 환경에 적응하는 데 필요한 지식을 얻고 문제 해결 능력을 향상시키며, 변화와 스트레스 대처에 도움을 받는다(Bolger, Zuckerman, & Kessler, 2000). 그래서 사회적 지지를 높게 지각할수록 외상 후 성장을 더 많이 경험할 것으로 여겨진다. 이는 다양한 외상경험자를 대상으로 한 연구들에서 지지된다(김신영, 2017; 김에스더, 김정규, 2019; 김유진, 2021; 서은영, 2017; 우현진, 2017; 윤명숙, 2012; 이유리, 장현아, 2016; 임예운, 2018; 최미의, 2016; Thornton & Perez, 2006). 특히, 여성은 남성에 비해 가족이나 친구와 같은 주변사람들과의 지지적인 관계에 더 많은 관심과 의미를 두기 때문에(차은정, 이순희, 2015), 이혼여성이 사회적 지지를 높게 경험하게 될 경우, 그렇지 않을 때보다 이혼 후 성장의 가능성이 그만큼 높아진다고 추정해 볼 수 있다.

다른 한편, 연구자들은 사회적 지지를 외상 후 성장에 중요한 요소로 지목하면서 다양한 변인들과의 관계를 연구하고 있다(안지혜, 2019; Rogerher, Hill, Knott, & Sault, 2003). 특히, 다양한 분야에서 회복탄력성 및 사회적 지지와 외상 후 성장과의 관련성에 주목하고 있고, 그 중에서도 사회적 지지가 외상 후 성장과의 관계에서 조절효과를 보여 외상 후 성장 수준이 달라짐을 밝힌 연구들이 있다(김신영, 2017; 노지안, 2021; 박영수, 2019; 윤명숙, 이은실, 2014; 이승현, 2018; Hyman & William, 2001; Scarpa, Haden, & Hurley, 2006). 다만, 국내외 연구들을 토대로 사회적 지지의 효과를 고찰한 배점모(2015)는 사회적 지지의 조절효

과는 연구자에 따라 혹은 같은 연구자라도 영향관계에 따라 달라진다고 했다. 이에 본 연구는 사회적 지지가 회복탄력성과 이혼 후 성장 사이에 조절하는 역할을 담당하여, 이혼 후 성장을 좀 더 촉진할 수 있는지 여부를 살펴보고자 한다. 아울러 본 연구는 이혼여성의 성인애착 양상의 변화보다는 이혼한 이후 성장으로 나아가는 과정에서 내적 변인으로서 회복탄력성과 외적 변인으로서 사회적 지지가 중요하다는 것을 검증하는 데 초점을 두고자 한다. 즉, 불안애착이나 회피애착이 회복탄력성을 매개하여 이혼 후 성장으로 나아갈 때 사회적 지지가 높을수록 이혼 후 성장에 미치는 회복탄력성의 영향력이 증가하여 이혼 후 성장이 더욱 높아지는지를 살펴보고자 한다.

지금까지 내용을 종합해보면, 현재 이혼여성을 대상으로 이혼 후 성장의 내적 변인으로서 회복탄력성과 외적 변인으로서 사회적 지지가 이혼 후 성장과 어떤 관련성이 있는지를 파악한 연구가 미미하고, 성인애착과 이혼 후 성장과의 관계에서 회복탄력성의 매개효과와 성인애착 차원에 따른 매개효과를 살펴본 연구도 드물다. 게다가 이혼여성들의 성인애착, 이혼 후 성장, 회복탄력성, 사회적 지지 간의 관계를 통합적으로 살펴본 연구 또한 전무한 실정이다. 이에 본 연구는 관련 선행연구들을 토대로 이혼을 경험한 여성을 대상으로 성인애착과 이혼 후 성장과의 관계에서 회복탄력성의 매개효과를 검증한 후, 회복탄력성과 이혼 후 성장과의 관계에서 사회적 지지의 조절효과를 검증하고, 최종적으로 성인애착이 회복탄력성을 통해 이혼 후 성장으로 가는 과정에서 사회적 지지의 조절된 매개효과를 검증하고자 한다. 이를 통해 그 동안 심리적 부적응에 초점을 맞춘 이혼이라는 경험을 외상 후

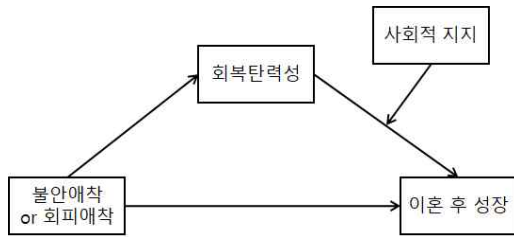


그림 1. 연구모형

성장이라는 개념을 도입하여 새로운 시각으로 이혼경험 여성을 재조명하는 기회를 가짐으로써, 이혼여성의 치료적 개입 시 성장에 초점을 맞춘 상담의 필요성을 피력할 수 있을 것으로 기대된다. 더불어 이혼 후 성장을 위한 상담과정에서 사례개념화 및 치료계획 수립과 이를 실행할 때도 성인애착과 회복탄력성, 사회적 지지 등을 탐색하고, 내담자의 내부 및 외부 자원에 대한 활용방안을 모색하고 실제 상담에 적용할 때 중요한 근거자료가 될 것이다.

본 연구의 연구모형은 그림 1과 같고, 연구문제는 다음과 같다. 첫째, 이혼경험 여성의 성인애착, 회복탄력성, 사회적 지지가 이혼 후 성장에 영향을 미치는가? 둘째, 이혼경험 여성의 성인애착과 이혼 후 성장과의 관계에서 회복탄력성이 매개하는가? 셋째, 이혼경험 여성의 사회적 지지가 회복탄력성과 이혼 후 성장과의 관계를 조절하는가? 넷째, 이혼경험 여성의 성인애착이 회복탄력성의 매개로 이혼 후 성장으로 가는 과정에서 사회적 지지의 조절된 매개효과가 있는가?

방 법

연구대상

본 연구는 우리나라에 거주하는 20~60대 한국인 성인 중 이혼을 경험한 여성을 대상으로 2022년 1월 21일부터 5일 동안 전문적인 온라인 서베이 기관에 의뢰하여 자료를 수집하였다. 총 226명의 응답 중 이혼 당시 심리적 고통에 대한 질문에 '전혀 고통스럽지 않았다'고 응답한 50명의 자료를 제외한 176명의 응답 자료를 최종 분석에 사용하였다. 연구대상자의 일반적 특성을 분석한 결과를 보면, 연령별 분포는 50대가 56명(31.8%), 30대 43명(24.4%), 40대 42명(23.9%) 순으로 나타났고, 최종학력은 고졸 72명(40.9%)과 대졸 62명(35.2%)이 높은 비율을 차지했으며, 자녀유무에서는 있음이 139명(79.0%)로 높게 나타났다.

측정도구

성인애착

본 연구에서는 성인애착을 측정하기 위해 Brennan 외(1998)가 개발한 친밀 관계 경험검사(Experiences in Close Relationships Questionnaire: ECR)를 Fraley, Brennan과 Waller(2000)가 문항반응 이론을 활용하여 개정하고 김성현(2004)이 번안하여 타당화한 친밀관계경험검사 개정판(ECR-Revised: ECR-R)을 사용하였다. 이 척도는 '불안'과 '회피' 2개 하위요인으로 구성되어 있고, 총 36개 문항이고, 7점 Likert 척도로 구성되어 있다. 김성현(2004)의 연구에서 신뢰도(Cronbach's α)는 애착불안 .89, 애착회피 .85였고, 본 연구에서는 불안애착 .90, 회피애착 .90이었다.

회복탄력성

본 연구에서는 Connor와 Davidson(2003)이 개발한 회복탄력성 척도(Connor-Davison Resilience Scale: CD-RISC)를 백현숙(2010)이 번안하고 타당도와 신뢰도를 검증한 척도(K-CD-RISC)를 사용하였다. 이 척도는 '강인함' '인내력' '변화에 대한 긍정적 수용' '통제력' '영성' 등 5개 하위요인으로 구성되어 있다. 총 25개 문항이고, 5점 Likert 척도로 구성되어 있다. 백현숙(2010)의 연구에서 신뢰도(Cronbach's α)는 .93이었고, 본 연구에서는 .94였다.

사회적 지지

본 연구에서는 박지원(1985)이 개발한 사회적 지지 척도를 김하람, 강재원, 김나래(2021)가 단축형으로 개발한 척도(Perceived Social Support through Others Scale-8: PSO-8)를 사용하였다. 이 척도는 총8개 문항이고, 5점 Likert 척도로 구성되어 있다. 개발 당시 신뢰도(Cronbach's α)는 .91이었고, 본 연구에서는 .94였다.

외상 후 성장

본 연구에서는 Tedeschi와 Calhoun(1996)이 개발한 외상 후 성장 척도(Post Traumatic Growth Inventor: PTGI)를 송승훈(2007)이 타당화한 '한국판 외상 후 성장 척도(Korea Post Traumatic Growth Inventory: K-PTGI)'를 사용하였다. 본 척도는 '자가지각의 변화' '대인관계 깊이의 증가' '새로운 가능성의 발견' '영적 종교적 관심의 증가' 등 4개 하위요인으로 구성되어 있다. 총 16개 문항이고, 6점 Likert 척도로 구성되어 있다. 송승훈(2007)의 연구에서 신뢰도(Cronbach's α)는 .91이었고, 본 연구에서는 .91이었다.

자료분석

본 연구에서는 이혼경험 여성의 성인애착과 이혼 후 성장의 관계에서 사회적 지지로 조절된 회복탄력성의 매개효과를 탐색하기 위하여 SPSS 21.0 통계프로그램을 이용하여 자료를 분석하였다. 연구 대상자의 인구통계학적 특성을 살펴보기 위해 빈도 분석을 실시하였고, 측정도구들의 신뢰도를 살펴보기 위해 문항간 내적합치도(Cronbach's α) 값을 산출하였다. 또한 주요변인들의 기술통계와 정상분포 가정 충족 여부를 확인하기 위해 평균, 표준편차, 왜도, 첨도를 산출하였고, 변인들 간 관련성을 살펴보기 위해 상관분석을 실시하였다. 이후 성인애착(불안애착, 회피애착)과 회복탄력성이 이혼 후 성장에 미치는 영향에 있어서 사회적 지지의 조절된 매개효과를 Hayes(2018)의 PROCESS (Version 3.4) 매크로를 이용해 검증하였고(Preacher, Rucker, & Hayes, 2007), Muller, Judd와 Yzerbyt(2005)의 절차에 따라 조절된 매개효과 분석을 하였다.

결 과

기술통계 및 상관분석

주요변인들의 기술통계와 상관분석 결과를 표 1에 제시하였다. 우선, 각 변인들의 정상분포 가정 여부를 살펴본 결과, 모든 변인들의 왜도(-.65 ~ .27)가 ± 2 이하, 첨도(-.44 ~ .81)가 ± 7 이하를 넘지 않아서 정상분포 가정을 충족하는 것으로 나타났다(West, Finch, & Curran, 1995). 다음으로 변인들 간 상관분석 결과를 살펴본 결과, 불안애착과 회피애착 간

표 1. 연구변인들의 상관분석 결과

(N = 176)

	불안애착	회피애착	회복탄력성	사회적 지지	이혼 후 성장
불안애착	-				
회피애착	.10	-			
회복탄력성	-.46***	-.24**	-		
사회적 지지	-.30***	-.36***	.50***	-	
이혼 후 성장	-.23**	-.40***	.58***	.50***	-
평균	56.34	78.78	61.64	27.49	48.55
표준편차	16.22	15.20	15.74	6.24	13.00
왜도	.27	.07	-.47	-.65	-.26
첨도	-.44	.01	.81	.57	-.33

** $p < .01$, *** $p < .001$.

상관을 제외한 나머지 변인들 간 상관관계가 통계적으로 유의한 것으로 나타났다($p < .01$). 구체적으로 불안애착은 회복탄력성($r = -.46, p < .001$), 사회적 지지($r = -.30, p < .001$), 이혼 후 성장($r = -.23, p < .01$)과의 부적 상관이 통계적으로 유의하였다. 회피애착은 회복탄력성($r = -.24, p < .01$), 사회적 지지($r = -.36, p < .001$), 이혼 후 성장($r = -.40, p < .001$)과의 부적 상관이 통계적으로 유의하였다. 회복탄력성은 사회적 지지($r = .50, p < .001$),

이혼 후 성장($r = .58, p < .001$)과의 상관이 정적 유의하였다. 마지막으로 사회적 지지는 이혼 후 성장($r = .50, p < .001$)과의 정적 상관이 유의하였다.

성인애착과 이혼 후 성장 간 관계에서 사회적 지지의 조절효과 검증

성인애착(불안애착, 회피애착)과 이혼 후 성장의 관계에서 사회적 지지의 조절효과를 검

표 2. 성인애착과 이혼 후 성장의 관계에서 사회적 지지의 조절효과

(N = 176)

단계	변인	B	SE	β	t	F	R ²	ΔR^2
1	불안애착(A)	-.07	.05	-.08	-1.23	30.70***	.26	.26***
	사회적 지지(B)	1.00	.14	.48	7.00***			
2	AXB	-.01	.01	-.11	-1.64	21.57***	.27	.01
1	회피애착(A)	-.21	.06	-.25	-3.59***	38.69***	.31	.31***
	사회적 지지(B)	.87	.14	.42	6.15***			
2	AXB	-.01	.01	-.11	-1.53	26.78***	.32	.01

*** $p < .001$.

증하기 위하여 위계적 중다회귀분석을 실시하였고, 그 결과를 표 2에 제시하였다. 분석 결과, 불안애착과 회피애착 모두 이혼 후 성장 간 관계에서 사회적 지지의 조절효과는 통계적으로 유의하지 않았기 때문에 이후 분석에서는 본 연구에서 설정한 조절된 매개효과 모형을 검증하였다.

성인애착과 이혼 후 성장 간 관계에서 회복탄력성의 매개효과 검증

성인애착과 이혼 후 성장의 관계에서 회복탄력성의 매개효과를 검증하기 위하여 Baron과 Kenny(1986)가 제안한 매개효과 분석 절차에 따라 3단계의 회귀분석을 실시하였고, 그 결과를 표 3에 제시하였다. 우선 불안애착의 경우, 1단계에서 이혼 후 성장에 대한 불안애착의 영향은 부적으로 유의하였으며($\beta = -.23, p < .01$), 2단계에서 회복탄력성에 대한 불안애착의 영향 또한 부적으로 유의하였다($\beta = -.46, p < .001$). 3단계에서 이혼 후 성장에 대한 회복탄력성의 영향은 정적으로 유의한 반

면($\beta = .61, p < .001$), 불안애착의 영향은 유의하지 않았다. 3단계에서 불안애착이 이혼 후 성장에 미치는 영향이 유의하지 않았기 때문에 회복탄력성은 불안애착과 이혼 후 성장 간 관계를 완전매개하는 것을 알 수 있었다. 회피애착을 살펴보면, 1단계에서 이혼 후 성장에 대한 회피애착의 영향은 부적으로 유의하였고($\beta = -.40, p < .001$), 2단계에서 회복탄력성에 대한 회피애착의 영향도 부적으로 유의하였다($\beta = -.24, p < .01$). 3단계에서 이혼 후 성장에 대한 회복탄력성의 영향은 정적으로 유의한 반면($\beta = .52, p < .001$), 회피애착의 영향은 부적으로 유의하였다($\beta = -.27, p < .001$). 회복탄력성을 통제한 상태에서도 회피애착이 이혼 후 성장에 미치는 영향이 유의하였기 때문에 회피애착과 이혼 후 성장 간 관계에서는 회복탄력성이 부분매개하는 것으로 나타났다.

다음으로 회복탄력성의 매개(간접)효과에 대한 통계적 유의성을 검증하기 위하여 부트스트래핑을 실시하였고, 그 결과를 표 4에 제시하였다. 우선 불안애착이 회복탄력성을 통해

표 3. 성인애착과 이혼 후 성장의 관계에서 회복탄력성의 매개효과 (N= 176)

	단계	준거변인	예측변인	B	SE	β	t	F	R ²
불안 애착	1	이혼 후 성장	불안애착	-.18	.06	-.23	-3.12**	9.71***	.05
	2	회복탄력성	불안애착	-.45	.07	-.46	-6.81***	46.33***	.21
	3	이혼 후 성장	회복탄력성	.50	.06	.61	8.73***	45.04***	.34
			불안애착	.04	.06	.05	.69		
회피 애착	1	이혼 후 성장	회피애착	-.34	.06	-.40	-5.74***	32.97***	.16
	2	회복탄력성	회피애착	-.25	.08	-.24	-3.31**	10.94***	.06
	3	이혼 후 성장	회복탄력성	.43	.05	.52	8.60***	60.33***	.41
			회피애착	-.23	.05	-.27	-4.54***		

** $p < .01$, *** $p < .001$.

표 4. 회복탄력성의 매개효과 부트스트래핑 결과

경로	B	Boot SE	95% 신뢰구간 (95% Biased-corrected CI)	
			하한값	상한값
불안애착 → 회복탄력성 → 이혼 후 성장	-.223	.041	-.308	-.149
회피애착 → 회복탄력성 → 이혼 후 성장	-.108	.035	-.182	-.046

주. 부트스트래핑 표본 수는 5,000개임.

이혼 후 성장으로 가는 간접경로는 95% 신뢰구간 내 하한값과 상한값이 각각 -.308, -.149로 0을 포함하지 않아 매개효과가 유의한 것으로 나타났다(Shrout & Bolger, 2002). 다음으로 회피애착이 회복탄력성을 통해 이혼 후 성장으로 가는 간접경로 역시 95% 신뢰구간 내 하한값과 상한값이 각각 -.182, -.046으로 0을 포함하지 않아 매개효과가 유의한 것으로 나타났다(Shrout & Bolger, 2002). 이러한 결과는 이혼경험 여성의 불안애착과 회피애착 수준이 높을수록 회복탄력성이 낮아져서 이혼 후 성장이 낮아지는 것을 보여준다.

회복탄력성과 이혼 후 성장 간 관계에서 사회적 지지의 조절효과 검증

회복탄력성과 이혼 후 성장의 관계에서 사회적 지지의 조절효과를 살펴보기 위하여 위계적 중다회귀분석을 실시하였고, 그 결과를

표 5에 제시하였다. 분석 결과, 1단계에서 이혼 후 성장에 대한 회복탄력성($\beta = .44, p < .001$)과 사회적 지지($\beta = .28, p < .001$)의 정적 영향이 모두 통계적으로 유의하였다. 2단계에서는 회복탄력성과 사회적 지지의 상호작용항이 이혼 후 성장에 미치는 영향($\beta = .17, p < .01$)과 설명량의 변화량($\Delta R^2 = .03, p < .01$)이 통계적으로 유의하였다. 즉, 회복탄력성과 이혼 후 성장의 관계에서 사회적 지지의 조절효과를 확인할 수 있었다.

사회적 지지의 조절효과의 형태를 더 구체적으로 살펴보기 위하여 Aiken과 West(1991)이 제안한 방법으로 도식화한 결과는 그림 2에 제시하였다. 더불어 사회적 지지의 낮은 수준(-1SD)과 높은 수준(+1SD)에 따른 회복탄력성과 이혼 후 성장의 개별적인 영향을 살펴보기 위해 단순 기울기(simple slope) 검증을 실시한 결과, 사회적 지지가 '낮을(-1SD)' 때 회복탄력성 수준이 증가할수록 이혼 후 성장이 유의하

표 5. 회복탄력성과 이혼 후 성장의 관계에서 사회적 지지의 조절효과 (N = 176)

단계	변인	B	SE	β	t	F	R ²	ΔR^2
1	회복탄력성(A)	.36	.06	.44	6.49***	57.93***	.40	.40***
	사회적 지지(B)	.59	.14	.28	4.18***			
2	AXB	.02	.01	.17	2.76**	42.645***	.43	.03**

p < .01, *p < .001.

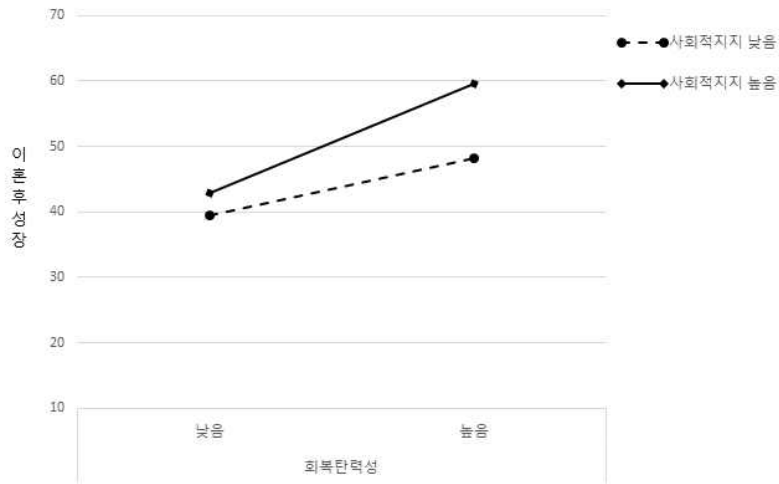


그림 2. 회복탄력성과 이혼 후 성장의 관계에서 사회적 지지의 조절효과

게 높아졌으며($B = .28, p < .001$), 사회적 지지가 '높음(+1SD)' 때에도 회복탄력성 수준이 증가할수록 이혼 후 성장이 높아지는 것으로 나타났다. 특히, 회복탄력성이 이혼 후 성장에 미치는 영향력의 크기(B)는 사회적 지지가 낮을 때 .28에 비해 높을 때 .53으로 증가하는 것으로 나타났으며, 이는 사회적 지지를 받는다고 지각할수록 회복탄력성이 이혼 후 성장에 미치는 영향이 더 증가하는 것을 의미한다.

조절된 매개효과 검증

Preacher, Rucker와 Hayes(2007)가 제안한 절차에 따라 불안애착 및 회피애착과 이혼 후 성장의 관계에서 회복탄력성을 매개변인으로, 사회적 지지를 조절변인으로 하는 조절된 매개효과를 Hayes(2018)의 PROCESS 매크로(모델 14)로 검증하였고, 그 결과를 표 6에 제시하였다.

우선, 불안애착의 경우 회복탄력성에 대한 불안애착($B = -.44, p < .001$)의 부적 영향이

통계적으로 유의하였고, 이혼 후 성장에 대한 회복탄력성과 사회적 지지의 상호작용항($B = .02, p < .01$)의 영향이 정적으로 유의하였다. 이러한 결과는 불안애착($B = .08, p < .001$)이 회복탄력성을 매개로 이혼 후 성장으로 가는 경로가 사회적 지지 수준에 따라 달라지는 것을 보여준다. 또한 사회적 지지의 조절된 매개지수(index of moderated mediation)도 $-.010$ ($boot\ se = .004$)로 95% 신뢰구간의 하한값과 상한값이 각각 $-.019, -.003$ 으로 0을 포함되지 않았으므로 사회적 지지의 조절된 매개효과가 있음을 알 수 있다. 따라서 사회적 지지 수준에 따라 회복탄력성의 매개효과의 변화가 어떠한지(조건부 간접효과)를 살펴보았고, 그 결과를 표 7에 제시하였다. 사회적 지지가 '낮음(-1SD)' 수준에서는 95% 신뢰구간의 하한값과 상한값이 각각 $-.220, -.065$ 로 0을 포함하지 않아 회복탄력성의 간접효과가 유의하였으며, '높음(+1SD)' 수준에서도 95% 신뢰구간의 하한값과 상한값이 각각 $-.384, -.161$ 로 0을 포함하지 않아 회복탄력성의 간접효과가 유의하였다. 특

표 6. 성인애착과 회복탄력성이 이혼 후 성장에 미치는 영향에서 사회적 지지의 조절된 매개효과

		<i>B</i>	<i>SE</i>	<i>t</i>
		종속변인: 회복탄력성		
	상수	25.07	3.83	6.54 ^{***}
	불안애착	-.44	.07	-6.81 ^{***}
		종속변인: 이혼 후 성장		
불안애착	상수	42.82	3.13	13.68 ^{***}
	회복탄력성	.44	.06	7.17 ^{***}
	불안애착	.08	.05	1.58
	사회적 지지	.62	.14	4.45 ^{***}
	회복탄력성 × 사회적 지지	.02	.01	2.97 ^{**}
		종속변인: 회복탄력성		
	상수	19.84	6.11	3.25 ^{**}
	회피애착	-.25	.08	-3.31 ^{**}
		종속변인: 이혼 후 성장		
회피애착	상수	62.33	4.12	15.12 ^{***}
	회복탄력성	.39	.06	7.05 ^{***}
	회피애착	-.19	.05	-3.65 ^{***}
	사회적 지지	.45	.14	3.22 ^{**}
	회복탄력성 × 사회적 지지	.02	.01	2.87 ^{**}

p* < .01, *p* < .001.

히, 사회적 지지가 커질수록 불안애착이 회복탄력성을 통해 이혼 후 성장으로 이어지는 간접효과의 크기가 증가하는 것으로 나타났다.

다음으로 회피애착을 살펴보면, 회복탄력성에 대한 회피애착($B = -.25, p < .01$)의 부적 영향이 통계적으로 유의하였고, 이혼 후 성장에 대한 회복탄력성과 사회적 지지의 상호작용항($B = .02, p < .01$)의 영향이 정적으로 유의하였다. 이는 회피애착($B = .08, p < .001$) 또한 회복탄력성을 매개로 이혼 후 성장으로 가는 경로가 사회적 지지 수준에 따라 달라지

는 것을 의미한다. 또한 사회적 지지의 조절된 매개지수(index of moderated mediation) 역시 $-.005$ (*boot se* = .003)로 95% 신뢰구간의 하한값과 상한값이 각각 $-.013, -.001$ 로 0을 포함되지 않아 사회적 지지의 조절된 매개효과가 나타났음을 알 수 있다. 이에 사회적 지지 수준에 따른 회복탄력성의 조건부 간접효과를 살펴보고, 그 결과를 표 7에 제시하였다. 사회적 지지가 '낮은(-1SD)' 수준에서는 95% 신뢰구간의 하한값과 상한값이 각각 $-.133, -.020$ 으로 0을 포함하지 않아 회복탄력성의 간접효과가

표 7. 사회적 지지의 수준에 따른 회복탄력성의 조건적 간접효과

독립변인	조절변인 (사회적 지지)	B	Boot SE	95% 신뢰구간 (95% Biased-corrected CI)	
				하한	상한
불안애착	-1SD	-.137	.039	-.220	-.065
	M	-.197	.041	-.290	-.128
	+1SD	-.257	.056	-.384	-.161
회피애착	-1SD	-.067	.028	-.133	-.020
	M	-.098	.033	-.173	-.041
	+1SD	-.129	.045	-.229	-.049

주. 부트스트래핑 표본 수는 5,000개임.

유의하였으며, ‘높은(+1SD)’ 수준에서도 95% 신뢰구간의 하한값과 상한값이 각각 -.229, -.049로 0을 포함하지 않아 회복탄력성의 간접효과가 유의하였다. 특히, 사회적 지지가 커질수록 회피애착 역시 회복탄력성을 통해 이혼 후 성장으로 이어지는 간접효과 크기가 증가하는 것으로 나타났다.

종합해보면, 불안애착과 회피애착 모두 회복탄력성을 통해 이혼 후 성장으로 가는 매개효과가 사회적 지지에 의해 조절되는 조절된 매개효과가 유의한 것으로 나타났다. 다만, 이때 불안애착의 경우에 이혼 후 성장으로 가는 경로가 유의하지 않아 완전매개효과가 나타난 반면, 회피애착은 이혼 후 성장으로 가는 경로가 유의한 부분매개효과가 나타났다.

논 의

본 연구에서는 이혼을 경험한 여성을 대상으로 성인애착과 이혼 후 성장과의 관계에서 회복탄력성이 매개하는지를 확인하고, 성인애

착이 회복탄력성의 매개에 의해 이혼 후 성장으로 가는 경로에서 사회적 지지의 조절효과 여부를 확인하고자 하였다. 이를 토대로 불안애착 혹은 회피애착 이혼여성의 이혼 후 성장을 이해하고 그에 따른 상담적 개입에 대한 근거자료를 마련하고자 했다. 본 연구를 통해 얻은 주요 결과를 요약하고 논의하면 다음과 같다.

첫째, 이혼경험 여성의 불안애착과 회피애착, 회복탄력성, 사회적 지지, 이혼 후 성장과의 관련성을 검증한 결과, 이 변인들 간의 상관관계가 유의하였다. 즉, 불안애착과 회피애착 모두 회복탄력성, 사회적 지지, 이혼 후 성장과 부적 상관을 보여, 불안애착과 회피애착이 높으면 회복탄력성, 사회적 지지, 이혼 후 성장 모두 낮다는 것을 알 수 있다. 또한 회복탄력성과 사회적 지지의 경우에는 둘 다 이혼 후 성장과 정적 상관을 보이고 있어, 회복탄력성이나 사회적 지지의 수준이 높으면 이혼 후 성장도 높다는 것을 알 수 있다.

다음으로 불안애착과 회피애착이 이혼 후 성장에 미치는 영향을 검증한 결과, 불안애착

과 회피애착이 이혼 후 성장에 부적인 영향을 미치는 것으로 나타났다. 이는 불안애착과 회피애착 모두 외상 후 성장에 부적 영향을 미친다는 여러 연구들(김경은, 정남운, 2018; 김태사, 안명희, 2013; 서보미, 2020; 성순이, 김혜란, 2018)과 일치하는 결과이다. 이는 불안애착과 회피애착 수준이 높을수록 이혼 후 성장이 낮아진다는 의미이고, 스트레스 상황에 직면했을 때 이를 대처하는 능력에 부정적인 영향을 줄 수 있다는 것을 내포하고 있다. 즉, 불안애착과 회피애착이 낮은 사람은 자신을 가치 있게 생각하는 동시에 타인을 호의적으로 지각하므로(임수진, 노안영, 2009; Mikulincer, Shaver, & Pereg, 2003) 스트레스 상황에서 자신을 둘러싼 내적, 외적 자원들을 잘 활용하여 효과적으로 잘 대처하는(Kemp & Neimeyer, 1999) 반면, 불안애착과 회피애착이 높은 사람은 스트레스에 효과적인 대처가 어려울 수 있음을 의미한다. 다시 말해 불안애착은 사건을 과대평가하여 압도되기 때문에 부적응적인 대처전략을 사용하고, 회피애착은 사건을 마주하는 것이 고통스러워 사건을 축소하는 전략을 사용하기 때문에(Mikulincer & Florian, 1995, 1998), 불안애착과 회피애착 둘 다 그 수준이 높을수록 이혼 후 성장으로 나아가는 과정에서 좀 더 어려움을 겪을 수 있다는 것을 시사한다.

그 다음으로 불안애착과 회피애착이 회복탄력성에 미치는 영향을 검증한 결과, 불안애착과 회피애착이 회복탄력성에 부적인 영향을 미치는 것으로 나타났다. 이는 불안애착과 회피애착이 높을수록 회복탄력성은 낮아진다는 의미이고, 불안애착과 회피애착이 서로 다른 내적 작동모델을 가지고 있지만 두 차원 모두 그 수준이 높을수록 회복탄력성은 낮아진다고

밝힌 이양궁(2015)의 연구결과와 일치한다. 이외 다른 연구들(김다혜, 2010; 김명진, 2019; 심수연, 김용수, 2015; 정철상, 2021)과도 동일한 맥락이다. 안정애착이 심각한 정신병리에 대항하는 일차적 방어기제(Werner & Smith, 1992)이자, 회복탄력적 기능을 촉진하여 어려움을 극복하도록 돕는다(Weinfeld, Sroufe, Egeland, & Carlson, 2008)는 맥락으로 이 결과를 본다면, 이혼여성의 성인애착을 안정적인 수준으로 만들어갈 때 회복탄력성이 높아질 수도 있음을 시사한다.

회복탄력성이 이혼 후 성장에 미치는 영향을 검증한 결과, 회복탄력성이 이혼 후 성장에 정적인 영향을 미치는 것으로 나타났다. 이는 회복탄력성이 높을수록 이혼 후 성장이 더 높아진다는 것을 의미하는 것으로, 관계상실자 혹은 암 생존자나 신생아 중환자실에 입원 경험이 있는 미숙아 어머니 등의 회복탄력성이 외상 후 성장에 영향을 미친다는 연구들(박서정, 2017; 박정숙, 김유정, 유영선, 박미향, 2018; 이현수, 2019; 조진희, 정문경, 2020)과 일치한다. 이 결과는 회복탄력성이 높으면 대인관계와 건강한 성격 형성에 긍정적 영향을 미치고(Woodward & Joseph, 2003), 위기의 순간에서도 긍정적 정서를 일으키며(Fredrickson & Losada, 2005), 문제 해결을 위한 다양한 정서적, 인지적, 행동적 자원을 융통성 있게 활용할 수 있다(Block & Kremen, 1996)는 의미를 내포한다. 또한 이혼경험 여성의 회복탄력성이 높아지면 이혼 외상에도 불구하고 그 상황을 잘 수용하고 적절한 대처로 빠르게 회복하여 긍정적 변화와 성장으로 나아갈 가능성도 시사한다.

사회적 지지가 이혼 후 성장에 미치는 영향을 검증한 결과, 사회적 지지가 이혼 후 성장

에 정적인 영향을 미치는 것으로 나타났다. 이는 외상사건을 경험한 이후 주변으로부터 사회적 지지가 많을수록 더 많은 긍정적인 변화를 경험하여 이혼 후 성장의 가능성이 높아진다는 의미이고, 사회적 지지를 높게 지각할수록 외상 후 성장 경험 가능성이 높아진다는 선행 연구들(김에스더, 김정규, 2019; 박선정, 2015)과 일치하는 결과이다. 특히, 4.16세월호 참사 피해 유가족의 외상 후 성장 영향요인을 탐색한 김진배(2022)의 연구에서도 사회적 지지가 외상 후 성장에 유의한 영향력을 보인다고 보고하였다. 또한 상실을 겪은 사람들의 외상 후 성장과 사회적 지지에 대한 메타분석의 결과, 외상 후 성장에 사회적 지지가 비교적 높은 효과 크기를 보인 장혜림과 강영신(2021)의 연구와도 동일한 맥락이므로, 이혼여성에게 적절한 사회적 지지가 제공되면 외상에도 불구하고 성장의 경험이 가능하다는 것을 시사한다.

둘째, 이혼경험 여성의 불안애착과 회피애착이 이혼 후 성장과의 관계에서 회복탄력성의 매개효과를 검증한 결과, 회복탄력성은 불안애착과 이혼 후 성장 사이에서 완전매개하는 것으로 나타났다. 이는 이혼 후 성장을 하는데 있어서 불안애착이 직접적으로 영향을 미치지 않는 대신 회복탄력성을 통한 간접적인 영향을 미친다는 것을 의미한다. 이를 구체적으로 보면, 불안애착은 자아존중감과 자신감이 낮고 타인에게 많이 의지하며 관계유지를 위해 노력하지만 타인으로부터 버림받거나 거절당하는 것을 두려워하기 때문에(Brennan et al., 1998), 타인의 관심을 끌기 위해 과도하게 근접성을 추구한다(Hazan & Shaver, 1987; Sharpsteen & Kirkpatrick, 1997). 그리고 불안애착이 높은 사람일수록 사소한

위협에 대해서도 과장되게 평가하여 자신의 심리적 고통을 더 악화시킨다(Mikulincer & Florian, 1998; Shaver & Mikulincer, 2002). 이로 인해 불안애착은 현실적응력에 부정적으로 작용할 가능성이 있다. 이러한 불안애착이 이혼 후 성장을 직접적으로 저해하기보다는 회복탄력성을 낮춤으로써 이혼이라는 외상사건 이후 성장으로 나아가는 데 걸림돌로 작용할 가능성을 시사한다.

반면, 회피애착의 경우에는 불안애착과 달리 회복탄력성이 이혼 후 성장과의 관계에서 부분매개하는 것으로 나타났다. 이는 회복탄력성이 부분매개하여 회피애착이 이혼 후 성장에 직접적으로 영향을 미칠 뿐만 아니라 간접적인 영향도 미친다는 것을 의미한다. 회피애착은 지나치게 자립적이고 타인에게 의존하는 것을 꺼리고 타인의 선행, 신뢰성, 의존성에 부정적인 인식을 갖는다(Brennan et al., 1998). 그리고 회피애착이 높으면 타인이 자신에게 아무 것도 해줄 수 없다고 지각하여 관계의 중요성을 평가절하하고, 상대방과 가까워지려는 노력을 잘 하지 않는다(Hazan & Shaver, 1987; Sharpsteen & Kirkpatrick, 1997). 이러한 회피애착은 관계에서의 친밀함과 의존에 대한 불편함을 가지고 있고, 이를 회피하거나 억압하고 있기에(권희선, 한기백, 2019), 현실적응력에 부정적으로 작용할 수 있다. 이러한 회피애착이 이혼 후 성장에 직접 관여하는 동시에 회복탄력성에도 부정적인 영향을 줌으로써 이혼 후 성장을 저해할 수 있음을 시사한다. 이렇듯 성인애착 차원에 따라 회복탄력성의 매개효과에서 직접 혹은 간접적인 영향이 다르게 나타난 것은, 불안애착과 회피애착이 같은 성인애착 차원에 있을지라도 두 차원의 생성 원인과 그 차원에 따른 대처방식이 다르

기 때문일 것으로 추정된다. 이는 상담현장에서 이혼여성의 성인애착에 대한 구체적인 탐색과 그에 따른 효과적인 개입의 필요성을 시사하고 있다.

이렇듯 회복탄력성이 성인애착 차원에 따라 매개효과가 다르게 나왔다. 이는 성인애착에 따라 회복탄력성의 매개효과가 다르게 나타난 김민석(2019)의 연구와 동일한 맥락이다. 하지만 성인애착과 이혼 후 성장 사이에서 회복탄력성이 매개역할을 한다는 것은 틀림이 없다. 이 결과는 불안애착 및 회피애착과 대인관계 능력과의 관계에서, 혹은 대학생의 진로 결정과의 관계에서 회복탄력성의 매개효과를 밝힌 연구와도 동일한 맥락이다(박인영, 2015; 정해기, 2018). 이는 불안애착 혹은 회피애착의 이혼여성이라도 회복탄력성 수준이 높아진다면 이혼 후 성장으로 나아갈 수 있다는 가능성을 내포한다. 또한 회복탄력성은 시간의 흐름에 따라 개인이 환경과 상호작용을 하는 과정에서, 혹은 학습을 통해 점진적인 변화가 가능한 특성을 지녔으므로(정은주, 2017; Dyer & McGuinness, 1996; Seccombe, 2002), 불안애착 혹은 회피애착을 지닌 이혼여성에게 회복탄력성을 높일 수 있는 적극적인 개입을 통해 그들의 성장을 도울 수 있음을 시사한다.

셋째, 이혼을 경험한 여성에 대한 사회적 지지는 회복탄력성과 이혼 후 성장과의 관계를 조절하는 것으로 나타났다. 즉, 이혼여성에게 사회적 지지를 높게 하면 그렇지 않을 때보다 이혼 후 성장에 미치는 회복탄력성의 영향력이 상대적으로 더 커진다는 것이다. 이는 이혼여성의 개인 내적 요인인 회복탄력성이 이혼 후 성장을 잘 예측하는 주요 변인이면서도 사회적 지지 수준에 따라서 그 설명력이 달라질 수 있음을 의미한다. 이 결과는 사회

적 지지가 외상 후 성장에 직접적인 영향을 주기도 하지만, 외상경험자가 일련의 과정을 통해 외상 후 성장에 이를 때 그 과정에서 사회적 지지의 조절효과로 외상 후 성장 수준이 달라짐을 밝힌 연구들(김신영, 2017; 노지안, 2019; 박영수, 2019; 윤명숙, 이은실, 2014; 이승현, 2018; Hyman & William, 2001; Scarpa, Haden, & Hurley, 2006)과 일치한다. 또한 재난 피해 유가족의 외상 후 성장에도 사회적 지지가 유의한 영향력을 보인 김진배(2022)의 연구와 외상 당시 주변사람들의 적극적이고 실제적인 지지를 통해 개인의 고통이 경감되고 그에 따른 부정적 감정까지 완화된다는 Peterson, Folkman과 Bakeman(1996)의 연구와도 동일한 맥락이다.

이 결과를 통해 개인의 회복탄력성 정도가 다르다 하더라도 사회적 지지가 주어짐으로 인해 이혼 후 성장에 좀 더 긍정적인 영향을 미칠 수 있음을 짐작할 수 있다. 이에 이혼이라는 외상을 겪은 여성들의 심리적 안정 도모 및 이혼 후 성장을 위하여 좁은 범위로는 가족과 친구 및 주요한 타인들의 사회적 지지가 도움이 될 수 있고, 이를 좀 더 확장하여 지역사회와 사회적 제도를 통한 공적 영역에서 사회적 지지를 제공할 수 있는 방안을 모색하는 것이 필요하다. 더불어 이혼여성들이 사회적 지지 자원들을 잘 활용할 수 있도록 하는 적극적인 홍보와 효율적인 개입 전략도 필요하다.

넷째, 앞서 살펴본 회복탄력성의 매개효과와 사회적 지지의 조절효과에 대한 논의를 기반으로 이들의 조절된 매개효과를 살펴보면 다음과 같다. 이혼경험 여성의 불안애착과 회피애착은 이혼 후 성장과의 관계에서 회복탄력성의 매개효과가 사회적 지지의 조절효과에

힘입어 이혼 후 성장 수준이 상승하는 조절된 매개효과로 나타났다. 이는 불안애착이나 회피애착이 회복탄력성을 매개하여 이혼 후 성장으로 나아가는 과정에서 사회적 지지가 높을수록 이혼 후 성장에 미치는 회복탄력성의 영향력이 증가하여 이혼 후 성장이 더욱 높아진다는 의미이다. 즉, 불안애착과 회피애착이 낮아지면 회복탄력성이 높아져 이혼 후 성장이 높아질 수도 있고, 더 나아가 사회적 지지 수준을 높임으로 인해 이것이 회복탄력성에 긍정적인 자극으로 작용하여 이혼 후 성장을 촉진하는 것이 가능하다는 것을 추정케 한다.

이 결과는 이혼이라는 외상경험으로 고통을 겪는 여성을 상담할 경우, 상담 초기에 이혼 여성의 성인애착 차원 뿐 아니라 회복탄력성 수준 및 사회적 지지 자원에 대한 탐색이 필요함을 시사한다. 여기서 성인애착을 탐색하는 것은 이미 내재화된 애착의 질이나 수준을 변화시켜서 안정애착을 하도록 돕는 개입을 하기 위함이라기보다는, 안전기지로서 역할을 하게 될 상담자와의 신뢰관계 형성을 위해, 그리고 상담계획 및 목표를 세울 때 참고자료로 활용하기 위해서라고 봐야 한다. 또한 회복탄력성 수준 및 사회적 지지 자원에 대한 탐색을 통해서도 회복탄력성과 사회적 지지의 수준을 높이는 구체적인 방안을 모색할 때 활용하기 위한 것이다. 상담자는 이 탐색자료를 근거로 내담자의 회복탄력성과 사회적 지지를 증진시키고 유지시킬 수 있는 전문적인 개입 방안이 무엇인지를 깊이 생각할 필요가 있다. 이를 구체적으로 보면, 회복탄력성 혹은 사회적 지지 자원이 부족한 이혼여성에게 우선 상담자가 강력한 지지체계의 하나라는 사실을 인식시키고 이를 충분히 활용할 수 있도록 돕는 것이 필요하다. 여기서 무엇보다 중요한

것은 상담자가 이혼을 바라보는 관점일 것이다. 이는 만약 상담자가 고통에 초점을 두고 이혼을 바라본다면 그 고통을 경감시키려는데 집중할 가능성이 있지만, 고통을 성장의 발판으로 삼는 외상 후 성장이라는 긍정적 관점으로 상황을 바라본다면 전문적인 개입 자체가 달라질 수 있기 때문이다. 이렇게 성장의 관점을 가진 상담자가 진심 어린 애정, 관심, 공감, 이해 등과 같은 정서적 지지를 통해 내담자와 신뢰를 구축한 후에 내담자의 강점을 탐색하고 적용하면서 그들의 강점이 극대화될 수 있도록 돕는다면 회복탄력성이 높아질 것으로 기대된다. 이와 더불어 가족해체로 인해 고통 받는 나머지 가족구성원과의 관계 회복을 위한 가족체계적인 관점의 가족상담이나 부모-자녀관계 개선을 위한 부모교육, 싱글들을 위한 이마고 싱글스 워크샵이나 회복탄력성 향상 프로그램, 자조모임 등과 같은 치유와 성장을 위한 집단프로그램에 참여하도록 기회를 열어주고 독려하는 등 다각도의 사회적 지지를 제공하고, 아울러 이런 사회적 지지에 대해 내담자가 분명하게 지각할 수 있도록 도울 필요가 있다.

이러한 일련의 과정 속에서 내담자는 자연스럽게 자신의 회복탄력성에 긍정적인 영향을 받을 수 있고, 이로써 이혼이라는 고통이 성장이라는 놀라운 경험으로 전환되는 것을 체험할 가능성이 높아질 것이다. 다시 말해 불안애착 혹은 회피애착의 이혼여성이라도 회복탄력성 수준이 높아진다면 이혼 후 성장에 이를 수 있고, 아울러 회복탄력성 수준이 낮다고 해도 사회적 지지 자원을 적극적으로 투입하고 이를 잘 지각하도록 돕는다면 이혼 후 성장의 가능성이 높아질 것이다. 이 과정을 통해 앞으로 위기상황에 처했을 때 이전보다

좀 더 성숙한 대처로 회복탄력성의 기능을 높일 수 있고, 이것이 다시 성장의 밑거름이 되어 상황 대처능력도 상승하게 되는 선순환을 경험하게 될 것이다. 이로써 내담자는 점점 내적 자원이 확장되고 공고해지는 경험을 하게 될 것으로 기대된다.

이상과 같은 본 연구의 결과를 종합해서 볼 때, 이혼여성들에게 이혼이라는 경험은 모두 동일할 수 있으나, 각 개인마다 현재 놓인 현실적인 상황이나 성인애착, 회복탄력성 수준, 이혼 이전의 경험, 사회적 자원 등이 모두 다르기 때문에 이혼 후 성장으로 가기 위해서는 개인의 특성들을 충분히 고려한 전문적인 개입이 필요하다. 즉, 이혼여성의 성인애착 탐색으로 관계패턴을 추정하여 상담자와의 신뢰감 형성 및 상담적 개입에 활용하고, 내담자의 내적 자원인 회복탄력성 수준을 탐색하여 이를 높이기 위한 상담을 진행하며, 사회적 지지체계에 대한 세밀한 탐색을 통해 보유한 자원의 활용과 새로운 자원 개발 및 활용을 돕고, 이를 잘 지각할 수 있도록 해준다면, 이혼의 고통에도 불구하고 긍정적인 변화와 성장을 경험할 수 있을 것으로 기대된다.

본 연구의 제한점과 이를 토대로 후속 연구에 대한 제언은 다음과 같다.

첫째, 본 연구는 총 226명의 응답 중 이혼 당시 심리적 고통에 대한 질문에 '전혀 고통스럽지 않았다'고 응답한 이혼경험 여성 176명을 대상으로 한 연구 결과이므로, 이혼이라는 특수한 조건으로 인해 대상자 확보의 어려움이 있음을 감안한다고 해도 이를 전체 이혼여성에게 일반화해서 적용하는 데는 분명 한계가 있다. 더욱이 같은 이혼의 경험이라도 자녀유무, 소득수준, 이혼 사유, 결혼유지기간 등과 같은 이혼 관련 특성에 따른 차이가 있

을 것이므로, 후속 연구에서는 이를 보완하여 연구할 필요가 있다. 더불어 이혼을 경험한 남성에 대한 연구도 함께 이루어져 이혼 후 성장과 관련한 성별 차이를 비교해보는 것도 의미가 있을 것이다.

둘째, 본 연구는 이혼경험에 대한 고통을 세부적으로 질문하지 못했기 때문에 대상자가 경험한 이혼의 고통 수준을 충분히 반영하지 못했다는 한계가 있다. 물론 인구통계학적 질문에서 이혼경험에 대한 고통 수준을 Likert 척도 5점으로 해서 진행했으나, 좀 더 구체적인 질문을 통해 외상이 명확한 대상자만을 측정할 수 있는 설계가 필요했다고 본다. 따라서 후속 연구는 외상이라고 명확하게 규정지을 수 있는 이혼여성만을 대상으로 연구할 필요가 있다.

셋째, 본 연구는 모든 변인들을 측정할 때 동일한 시점의 자기보고식 설문을 분석한 횡단적 연구이므로, 본 연구의 결과를 통해 변인들 간의 인과관계를 밝히는 데는 한계가 있다. 따라서 후속 연구에서는 이를 보완하기 위해 관련변인들과의 관계를 반복 측정하는 종단적 연구가 필요하다. 또한 이혼 후 성장의 의미 있는 변화 과정에 대한 본질적인 이해를 돕기 위해 질적 연구 혹은 혼합 연구가 필요하다.

넷째, 이혼 후 경과시간에 따라 이혼 후 적용 수준이 다를 수 있음에도 본 연구에서는 이를 통제하지 않고 진행했다는 한계가 있다. 따라서 후속 연구에서는 시간변인을 통제한 상태에서 다양한 인구통계학적인 요소들이 이혼 후 성장에 어떠한 영향을 미치는지를 살펴보는 것이 필요하다.

다섯째, 외상 후 성장에 주요 변인 중에서 개인적 특성인 성인애착, 내적 요인인 회복탄

력성, 외적 요인인 사회적 지지에 한정 지어 이혼 후 성장을 검증했다는 한계가 있다. 물론 회복탄력성과 사회적 지지가 외상 후 성장의 대표적인 변인이긴 하지만, 이 변인 외에도 의도적 반추처럼 외상 후 성장에 영향을 미치는 강력한 요인임이 검증된(Triplett, Tedeschi, Cann, Calhoun, & Reeve, 2012) 변인도 있다. 따라서 후속 연구에서는 이혼 후 성장과의 관련성이 예측되는 보다 다양한 변인들에 대한 폭넓은 연구가 필요하다.

이러한 제한점에도 불구하고 본 연구가 갖는 의의와 상담에서의 시사점은 다음과 같다. 첫째, 본 연구는 대인관계 외상 중에서도 이혼경험에 초점을 두었다는 점과 이혼경험을 외상 후 성장의 관점으로 연구하였다는 점에서 의의가 있다. 이는 현재까지 이루어진 외상 후 성장과 관련된 대부분의 선행연구들이 외상경험의 종류를 세분화하지 않고 진행했거나, 혹은 사별, 이별, 이혼을 다 포함하여 관계상실로 외상경험을 연구한 것과 차별되는 점이다 특히, 이혼이라는 특수한 조건으로 대상자 확보가 쉽지 않은데도 이혼여성만을 집중해서 양적 연구를 진행했다는 점만으로도 의의가 있다. 따라서 본 연구는 상담을 의뢰한 이혼여성의 심리적 안녕과 성장을 위한 적절하고 효과적인 상담적 개입에 대한 필요성을 피력할 수 있고, 그에 따른 실질적인 개입 전략을 수립하는 데 근거자료로 쓰일 것이다. 즉, 이혼경험으로 인한 주관적 고통을 호소하는 내담자와 상담을 할 때, 이들의 고통이 고통으로만 머물지 않고 치유와 성장이 함께 이루어질 수 있는 구체적인 개입 방안을 수립하는 데 일조할 것으로 기대된다.

둘째, 본 연구는 불안애착과 회피애착이 이혼 후 성장에 미치는 영향에서 회복탄력성과

사회적 지지의 역할을 통합적으로 살펴보기 위해 매개효과와 조절효과가 결합된 조절된 매개효과를 검증하였다. 즉, 이혼경험 여성들의 불안애착, 회피애착과 이혼 후 성장 사이에 회복탄력성의 매개효과를 검증하였고, 회복탄력성의 매개효과가 사회적 지지의 조절효과에 힘입어 이혼 후 성장 수준이 상승하는 조절된 매개효과도 검증하였다. 이는 대부분의 선행연구가 외상 후 성장과의 관계에서 회복탄력성과 사회적 지지의 단순 매개효과나 조절효과만을 살펴본 것과 다른 점이다. 이에 본 연구는 이혼 후 성장과 관련된 다양한 변인들 간의 관계성을 추론해볼 수 있는 기초자료로 활용될 것이 기대된다.

셋째, 본 연구는 불안애착과 회피애착에 따라 이혼 후 성장으로 가는 과정에서 회복탄력성의 매개효과가 다르다는 것을 검증하였다. 즉, 불안애착은 이혼 후 성장을 직접적으로 저해하기보다는 회복탄력성을 낮춤으로써 이혼 후 성장을 저해할 수 있고, 회피애착은 직접적으로 혹은 회복탄력성에 간접적으로 영향을 주어 이혼 후 성장을 저해할 수 있다는 것을 밝혔다. 이는 성인애착 차원에 따라 내담자와 신뢰감을 형성하는 방식을 달리하고 효과적인 상담 개입을 함으로써 회복탄력성에 긍정적인 영향을 주고, 이것이 성장으로 이어지는 추진체가 될 수 있다는 것을 시사한다. 이에 본 연구는 상담 초기에 이혼여성의 성인애착과 회복탄력성 수준에 대한 탐색의 필요성을 피력할 근거자료가 될 것으로 기대된다.

참고문헌

강현아 (2019). 소방공무원의 외상 후 스트레스,

- 회복탄력성, 사회적 지지가 외상 후 성장에 미치는 영향. 한양대학교 석사학위논문.
- 권희선, 한기백 (2019). 대학생이 지각한 부모 애착과 스트레스의 관계. 청소년학연구, 26(1), 155-183.
- 김경은, 정남운 (2018). 애착과 외상 후 성장의 관계: 정신화와 성장적 반추의 매개효과. 한국심리학회지: 건강, 23(3), 739-764.
- 김다혜 (2010). 성인애착과 대학생 우울간의 관계: 심리적 탄력성의 매개효과. 경북대학교 석사학위논문.
- 김명진 (2019). 대학생 성인애착과 사회적 지지 및 회복탄력성의 관계: 사회적 지지를 매개로. 수원대학교 석사학위논문.
- 김민석 (2019). 예비유아교사의 성인애착과 정신건강 관계에서 회복탄력성의 매개효과. 실천유아교육학, 24(1), 1-20.
- 김서현, 원종아 (2020). 이혼자의 성장 경험에 대한 해석학적 현상학 연구: 법원 미술심리상담실 이용자 중심으로. 미술치료연구, 27(4), 699-724.
- 김성현 (2004). 친밀관계경험검사 개정판 타당화 연구: 확증적 요인분석과 문항반응이론을 중심으로. 서울대학교 석사학위논문.
- 김신영 (2017). 외상후 스트레스로서의 교사대상 폭력피해 경험과 외상후 성장의 관계: 자기노출, 성장적 반추, 사회적 지지를 중심으로. 이화여자대학교 석사학위논문.
- 김에스터, 김정규 (2019). 감사성향이 외상 후 성장에 미치는 영향: 사회적 지지와 자아탄력성의 매개효과. 한국심리학회지: 건강, 24(2), 451-468.
- 김유진 (2021). 취업준비 환자의 삶의 의미, 사회적 지지가 외상 후 성장에 미치는 영향. 서울대학교 석사학위논문.
- 김은미, 이종연 (2015). 연인과의 이별을 경험한 대학생의 애착과 자아탄력성이 이별 후 성장에 미치는 영향: 의도적 반추와 문제중심 대처를 매개변인으로. 상담학연구, 16(1), 147-174.
- 김정현 (2012). 저소득 이혼여성의 빈곤화 과정: 가족제도와 노동시장에서의 사회적 배제 경험을 중심으로. 한국가족복지학, 38, 69-102.
- 김주환 (2011). 회복탄력성: 시련을 행운으로 바꾸는 유쾌한 비밀. 서울: 위즈덤하우스.
- 김진배 (2022). 재난을 경험한 유가족의 외상 후 성장에 미치는 개인적, 사회적 영향요인 탐색. 중앙대학교 석사학위논문.
- 김진수, 서수균 (2011). 친밀한 관계경험과 성장적 반추가 외상 후 성장에 미치는 영향. 한국심리학회지, 30(3), 793-809.
- 김태사, 안명희 (2013). 불안정 성인애착이 심리적 역경 후 성장에 미치는 영향: 자기대상과 정신화의 매개효과. 한국심리학회지: 상담 및 심리치료, 25(4), 853-871.
- 김하람, 강재원, 김나래 (2021). Rasch 모형을 이용한 간접적으로 지각한 사회적 지지 척도 단축형(PSO-8) 개발. 인간이해, 42(1), 51-70.
- 김혜선, 김은하 (2010). 이혼한 여성 한부모 어머니의 경험. 한국위기관리논집, 6(1), 219-242.
- 김혜진, 서경현 (2016). 중학생의 생활 스트레스와 삶에 대한 태도 간의 관계에서 자아탄력성의 역할. 청소년학연구, 23(6), 297-316.
- 노지안 (2021). 소방공무원의 성장적 반추가 외상 후 성장에 미치는 영향: 사회적 지지와 탄력성의 조절효과 중심으로. 인문사

- 회 21, 12(5), 306-316.
- 박귀영 (2008). 가족복지론. 서울: 은혜출판사.
- 박보경 (2013). 대학생의 탄력성, 삶의 의미, 의도적 반추 및 외상 후 성장의 관계. 경북대학교 석사학위논문.
- 박상진, 김양희, 어성연, 박정윤, 장영은, 정진희 (2009). 이혼숙려제도 활성화를 위한 기초연구. 한국가족자원경영학회지, 13, 157-180.
- 박서정 (2017). 애도경험과 외상 후 성장의 관계: 회복탄력성과 자아존중감의 매개효과. 한국가족복지학, 22(4), 565-583.
- 박영수 (2019). 소방공무원의 외상사건 경험이 외상 후 성장에 미치는 영향: 외상 후 스트레스의 매개효과 및 회복탄력성과 사회적 지지의 조절된 매개효과. 인제대학교 박사학위논문.
- 박인영 (2015). 대학생의 부-모애착, 성인애착이 진로결정에 미치는 영향: 회복탄력성의 매개효과. 경북대학교 석사학위논문.
- 박정숙, 김유정, 유영선, 박미향 (2018). 암 생존자의 외상 후 성장에 영향을 미치는 요인. 대한중양간호학회, 18(1), 30-39.
- 박지원 (1985). 사회적 지지척도 개발을 위한 일 연구. 연세대학교 박사학위논문.
- 박태영 (2007). 이혼한 한부모 가정에 대한 가족치료. 사회과학논총, 9, 125-158.
- 박혜림 (2019). 성인애착과 이별 후 성장의 관계에서 탈중심화의 매개효과. 단국대학교 석사학위논문.
- 배점모 (2015). 사회적 지지의 효과에 대한 이론적 고찰. 한국자치행정학보, 29(4), 49-70.
- 백현숙 (2010). 한국형 Connor-Davidson 자아탄력성 척도의 신뢰도 및 타당도 연구. 을지대학교 석사학위논문.
- 서보미 (2020). 관계상실 경험자의 불안정 성인애착과 외상 후 성장의 관계: 정신화와 경험회피의 매개효과. 명지대학교 석사학위논문.
- 서영석, 조화진, 안하얀, 이정선 (2012). 한국인이 경험한 외상사건: 종류 및 발생률. 한국심리학회지: 상담 및 심리치료, 24(3), 671-701.
- 서은영 (2017). 유방암 생존자의 영적안녕, 자아존중감 및 지각한 사회적지지가 외상후 성장에 미치는 영향. 고신대학교 석사학위논문.
- 성순이, 김해란 (2018). 외상경험자의 성인애착과 외상 후 성장의 관계에서 자아분화의 매개효과. 복지상담교육연구, 7(1), 305-329.
- 송승훈 (2007). 한국판 외상 후 성장 척도 (K-PTGI)의 신뢰도와 타당도. 충남대학교 석사학위논문.
- 송승훈, 이홍석, 박준호, 김교현 (2009). 한국판 외상 후 성장 척도의 타당도 및 신뢰도 연구. 한국심리학회지: 건강, 14, 193-214.
- 심수연, 김용수 (2015). 불안정 성인애착과 생활스트레스의 관계: 회복탄력성의 매개효과. 상담학연구, 16(5), 95-105.
- 심원경 (2020). 기혼남녀의 성인애착과 외상 후 성장의 관계: 자아탄력성의 매개효과. 한국웰니스학회지, 15(1), 259-273.
- 안지혜 (2019). 외상 경험자의 자기노출이 외상 후 성장에 미치는 영향: 지각된 사회적 지지와 의도적 반추의 매개효과. 서울여자대학교 석사학위논문.
- 여성가족부 (2015). 2015년 전국 한부모가족 실태조사. <http://www.mogef.go.kr>.
- 오은규 (2019). 이혼자들의 이혼 후 성장 경험에

- 관한 연구. 연세대학교 박사학위논문.
- 옥선화, 남영주, 강은영 (2006). 이혼자들의 이혼 인식에 관한 질적연구. 한국가정관리학회지, 24(1), 223-235.
- 우현진 (2017). 데이트폭력 피해 여성의 경험에 관한 연구. 전주대학교 석사학위논문.
- 유희정 (2012). 외상 후 성장에 영향을 미치는 변인들 간의 구조적 관계. 부산대학교 박사학위논문.
- 윤명숙, 박은아 (2012). 정신장애인 가족의 외상 후 성장 영향요인. 한국가족복지학, 38, 201-228.
- 윤명숙, 이은실 (2014). 장애수용이 중도장애인의 외상 후 성장에 미치는 영향: 사회적 지지의 조절효과. 한국장애인복지학, 26, 55-74.
- 윤정연, 유미숙 (2018). 이혼 여성의 자녀양육 경험. 놀이치료연구, 22(1), 75-88.
- 이경희 (2014). 재판상 이혼 소송 청구를 당한 중년여성의 심리적 경험 연구. 백석대학교 박사학위논문.
- 이동훈, 이수연, 윤기원, 최수정, 김시형 (2017). 성격 5요인, 외상 후 인지, 사건 관련 반추, PTSD증상, 외상 후 성장의 관계. 한국심리학회지: 일반, 36(2), 241-270.
- 이승현 (2018). 소방공무원의 외상사건 경험과 외상 후 스트레스와의 관계에서 사회적 지지의 조절효과. 아주대학교 석사학위논문.
- 이양궁 (2015). 대학생의 성인애착과 회복탄력성의 관계: 용서의 매개효과. 숙명여자대학교 석사학위논문.
- 이유리, 장현아 (2016). 관계 상실 경험 여고생의 자기노출, 사회적 지지가 외상 후 성장에 미치는 영향. 한국심리학회지: 여성, 21(1), 65-80.
- 이혜경 (2014). 결혼이주여성의 이혼 후 삶의 경험. 전북대학교 박사학위논문.
- 이현수 (2019). 신생아 중환자실에 입원 경험이 있는 미숙아 어머니의 회복탄력성, 사회적 지지가 외상 후 성장에 미치는 영향. 이화여자대학교 석사학위논문.
- 임선영, 권석만 (2012). 대학생의 관계상실을 통한 성장에 관한 연구: 인지적 유연성과 인지적 정서조절 전략을 중심으로. 한국심리학회지: 일반, 31(2), 261-281.
- 임수진, 노안영 (2009). 성인애착이 도움추구 의도에 미치는 영향: 자기노출, 사회적 지지, 자기은폐 매개변인을 중심으로. 상담학연구, 10(3), 1383-1396.
- 임예운 (2019). 강력범죄피해자가 지각한 사회적 지지가 외상 후 성장에 미치는 영향: 자기노출과 희망적 사고의 매개효과. 숭실대학교 박사학위논문.
- 장혜경, 민가영 (2002). 이혼여성의 부모역할 및 자녀양육지원방안에 관한 연구. 한국여성정책연구원 연구보고서.
- 장혜림, 강영신 (2021). 상실을 겪은 사람들의 외상 후 성장과 사회적 지지에 대한 상관 메타분석. 한국심리학회회학술대회 자료집.
- 전현규 (2019). 관계상실 경험자가 지각한 정서 인식 명확성과 외상 후 성장의 관계: 정서노출과 의도적 반추의 매개효과. 서강대학교 석사학위논문.
- 정경임, 전혜성 (2020). 외상경험이 있는 중년기 성인의 지각된 배우자지지, 외상후성장, 회복탄력성, 인지적 정서조절전략 간의 구조적 관계분석. 가족과 가족치료, 28(4), 427-450.
- 정은주 (2017). 청소년 회복탄력성 관련 변인에 관한 메타분석. 초당대학교 박사학위논문.

- 정지양 (2015). 대인관계 외상 경험 대학생의 성인 애착이 외상 후 성장에 미치는 영향: 인지적 정서조절의 매개효과. 부산대학교 석사학위논문.
- 정철상 (2021). 대학생의 성인애착이 진로장벽에 미치는 영향: 회복탄력성의 매개효과를 중심으로. 한국산학기술학회, 22(3), 215-226.
- 정해기 (2018). 직장인의 성인애착이 대인관계능력에 미치는 영향: 회복탄력성의 매개효과를 중심으로. 동국대학교 석사학위논문.
- 정현숙, 공미혜, 전영주, 조은숙, 정혜정 (2020). 가족과 젠더. 서울: 신정
- 조진희, 정문경 (2020). 관계상실을 경험한 중년여성의 외상 후 성장에 대한 내러티브 탐구. 한국심리학회지: 상담 및 심리치료, 32(3), 1225-1261.
- 주인석, 김명찬, 이현진 (2020). 외상 후 성장 경험에 대한 질적 메타분석. 질적 탐구, 6(2), 523-555.
- 차은정, 이순희 (2015). 중년남성의 우울, 외로움, 사회적 지지가 노화불안에 미치는 영향. 한국보건간호학회지, 30(1), 30-41.
- 차혜지 (2019). 교통사고 환자의 외상후 성장에 미치는 영향요인. 창신대학교 석사학위논문.
- 최미의 (2016). 저소득층 암 생존자의 사회적 지지와 의도적 반추가 외상후 성장에 미치는 영향. 경북대학교 석사학위논문.
- 최선재 (2011). 상실 경험의 의미 재구성과 심리적 적응의 관계. 이화여자대학교 석사학위논문.
- 최선화, 오영란 (2018). 여성복지론. 경기: 공동체.
- 최은화, 이윤화 (2010). 이혼 후 여성의 자기인식 변화 과정 연구. 한국가족복지학, 28, 119-149.
- 통계청 (2020). 2019년 혼인 이혼 통계 보도자료. <https://www.kostat.go.kr>.
- Block, J. H., & Kremen, A. M. (1996). IQ and ego-resiliency: Conceptual and empirical conceptions and separateness. *Journal of Personality and Social Psychology*, 59, 158-167.
- Bolger, N., Zuckerman, A., & Kessler, R. C. (2000). Invisible support and adjustment to stress. *Journal of Personality and Social Psychology*, 79, 953-961.
- Bowlby, J. (1958). The nature of the child's tie to his mother. *The International Journal of Psychoanalysis*, 39, 350-373.
- Bowlby, J. (1973). *Separation, anxiety and anger (Volume Two of Attachment and Loss)*. London: The Hogarth press and the institute of psycho-analysis.
- Brennan, K. A., Clark, C. L., & Shaver, P. R. (1998). *Self-report measurement of adult attachment: An integrated interview*. New York: Guilford Press.
- Coates, S. W., Rosenthal, J. L., & Schechter, D. S. (2003). *September 11: Trauma and Human Bonds*. Hillsdale, NJ: The Analytic Press.
- Cohen, W., Underwood, L. G., & Gottlieb, B. G. (2000). *Social support measurement and intervention: a guide for health and social scientists*. Oxford, NY: Oxford University Press.
- Dyer, J. G., McGuinness, T. M. (1996). *Overcoming the odds: High risk children from birth to adulthood*. New York: Cornell University Press.
- Fredrickson, B. L. & Losada, M. F. (2005). Positive affect and complex dynamics of human

- flourishing. *The American psychologist*, 60(7), 678-686.
- Godleski, L. (2010). Teaching residents to recognize the impact of divorce. *Academic Psychiatry*, 34(5), 378-380.
- Hayes, A., F. (2018). *Introduction to mediation, moderation, and conditional process analysis* (2nd Ed). New York: The Guilford Press.
- Hazan, C., & Shaver, P. (1987). Romantic love conceptualized as an attachment process. *Journal of Personality and Social Psychology*, 52(3), 511.
- Holmes, J. (1993). Attachment theory: a biological basis for psychotherapy. *The British Journal of Psychiatry*, 163(4), 430-438.
- Holmes, T. H., & Rahe, R. H. (1967). The social readjustment rating scale. *Journal of Psychosomatic Research*, 11(2), 213-218.
- Hyman B, Williams L. (2001). Resilience among women survivors of child sexual abuse. *Affilia*, 16, 198 - 219.
- Joseph, S. (2018). 외상 후 성장의 과학(임선영, 김지영 역). 서울: 학지사. (원전은 2013년에 출판)
- Kemp, M. A., & Neimeyer, G. J. (1999). Interpersonal attachment: Experiencing, expressing, and coping with stress. *Journal of Counseling Psychology*, 46(3), 388-394.
- Lopez, S. J., & Snyder, C. R. (2003). *Positive psychological assessment: a handbook of models and measures*. Columbia: American Psychological Association.
- Maiberger, B. (2018). 트라우마, 기억으로부터의 자유(김준기, 배재현, 사수연 역). 경기: 수오서재. (원전은 2009년에 출판)
- Marshall, T. C., Bejanyan, K., & Ferenczi, N. (2013). Attachment styles and personal growth following romantic breakups: The mediating roles of distress, rumination, and tendency to rebound. *PLoS ONE*, 8(9), e75161.
- McElheran, M., Briscoe-Smith, A., Khaylis, A., Westrup, D., Hayward, C., & Gore-Felton, C. (2012). A conceptual model of post-traumatic growth among children and adolescents in the aftermath of sexual abuse. *Counseling Psychology Quarterly*, 25(1), 73-82.
- Mikulincer, M., & Florian, V. (1995). Appraisal of and coping with a real-life stressful situation: The contribution of attachment styles. *Personality and Social Psychology Bulletin*, 21(4), 406-414.
- Mikulincer, M., & Florian, V. (1998). The relationship between adult attachment styles and emotional and cognitive reactions to stressful events. In J. A. Simpson & W. S. Rholes (Eds), *Attachment theory and close relationships* (pp. 143-165). New York: Guilford Press.
- Mikulincer, M., & Shaver, P. R. (2003). The attachment behavioral system in adulthood: Activation, psychodynamics, and inter-personal processes. *Advances in Experimental Social Psychology*, 35, 53-152.
- Mikulincer, M., Shaver, P. R., & Horesh, N. (2006). Attachment Bases of Emotion Regulation and Posttraumatic Adjustment. In D. K. Snyder, J. Simpson, & J. N. Hughes (Eds.), *Emotion regulation in couples and families: Pathways to dysfunction and health* (pp. 77-99). American Psychological Association.

- Muller, D., Judd, C. M., & Yzerbyt, V. Y. (2005). When moderation is mediated and mediation is moderated. *Journal of Personality and Social Psychology, 89*(6), 852-863.
- OECD (2019). *한눈에 보는 사회* 2019. <http://www.oecdkorea.org>.
- Overbeek, G., Vollebergh, W., Engels, R. C., & Meeus, W. (2003). Parental attachment and romantic relationships: Associations with emotional disturbance during late adolescence. *Journal of Counseling Psychology, 50*(1), 28-39.
- Peterson, J. L., Folkman, S. & Bakeman, R. R. (1996). Stress, coping, HIV status, psycho social resources and depressive mood in African American gay, bisexual, and heterosexual men. *American Journal of Community Psychology, 24*, pp. 461-487.
- Preacher, K. J., Rucker, D. D., & Hayes, A. F. (2007). Addressing moderated mediation hypotheses: Theory, methods, and prescriptions. *Multivariate Behavioral Research, 42*(1), 185-227.
- Rogerher, C., Hill, J., Knott, T., & Sault, B. (2003). Social support, self efficacy and trauma in new recruits and experienced firefighters. *Stress and Health, 19*(4), 189-193.
- Scarpa A, Haden S C, & Hurley J. (2006). Community Violence Victimization and Symptoms of Posttraumatic Stress Disorder: The Moderating Effects of Coping and Social Support. *Journal of Interpersonal Violence, 21*(4), 446-469.
- Seccombe, K. (2002). Beating the odds versus changing the odds: Poverty, resilience and family policy. *Journal of Marriage and Family, 64*(2), 384-394.
- Sharpsteen, D. J., & Kirkpatrick, L. A. (1997). Romantic jealousy and adult romantic attachment. *Journal of Personality and Social Psychology, 72*(3), 627-640.
- Shrout, P. E., & Bolger, N. (2002). Mediation in experimental and nonexperimental studies: New procedures and recommendations. *Psychological Methods, 7*(4), 422-445.
- Sperling, M. B., & Berman, W. H. (1994). *Attachment in adults: Clinical and developmental perspectives*. New York: Guilford Press.
- Taylor, R. E., Mann, A. H., White, N. J., & Goldberg, D. P. (2000). Attachment style in patients with unexplained physical complaints. *Psychological Medicine, 30*(4), 931-941.
- Tedeschi, R. G., & Calhoun, L. G. (1995). *Trauma and transformation: growing in the aftermath of suffering*. Thousand Oaks, CA: Sage Publications.
- Tedeschi, R. G., & Calhoun, L. G. (1996). The post traumatic growth inventory: Measuring the positive legacy of trauma. *Journal of Traumatic Stress, 9*(3), 455-472.
- Tedeschi, R. G., & Calhoun, L. G. (2004). Posttraumatic growth: Conceptual foundations and empirical evidence. *Psychological inquiry, 15*(1), 1-18.
- Thornton, A. A., & Perez, M. A. (2006). Posttraumatic growth in prostate cancer survivors and their partners. *Psychology, 15*(4), 285-296.
- Triplet, K. N., Tedeschi, R. G., Cann, A., Calhoun, L. G., & Reeve, C. L. (2012). Posttraumatic growth, meaning in life, and

- life satisfaction in response to trauma. *Psychological Trauma: Theory, Research, Practice, and Policy*, 4(4), 400-410.
- Weinfield, N. S., Sroufe, L. A., Egeland, B., & Carlson, E. (2008). Individual differences in infant-caregiver attachment: Conceptual and empirical aspects of security. In J. Cassidy & P. R. Shaver (Eds.), *Handbook of attachment: Theory, research, and clinical applications*. New York: Guilford Press
- Werner, E. E., & Smith, R. S. (1992). *Overcoming the odds: High risk children from birth to adulthood*. Ithaca, NY: Cornell University Press.
- Woodward, C., & Joseph, S. (2003). Positive change process and posttraumatic growth in people who have experienced childhood abuse: Understanding vehicles of change. *Psychology and Psychotherapy: Theory, Research and Practice*, 76, 267-283.
- 1차원고접수 : 2022. 08. 30.
심사통과접수 : 2022. 09. 06.
최종원고접수 : 2022. 09. 30.

The Relationship between the Attachment of Divorced Women and Post-divorce Growth: A Moderated Mediating Effect of Social Support through Resilience

Yun jung Seol

Daybreak University

Kyong-ae Ham

Yonsei Psychological Science Innovation Institute

The purpose of this study was to examine the moderated mediating effect of social support through resilience on the relationship between the attachment of divorced women and post-divorce Growth. 176 women in their 20s to 60s participated in the study. The data were analyzed using SPSS 21.0. The results were as follows. First, anxiety attachment and avoidance attachment negatively affected resilience, social support, and post-divorce Growth. And resilience and social support positively affected on post-divorce Growth. Second, resilience fully mediated the relationship between anxiety attachment and post-divorce Growth, while avoidance attachment and post-divorce Growth were partially mediated. Third, social support adjusted the relationship between resilience and post-divorce Growth. Fourth, anxiety attachment and avoidance attachment showed a controlled mediating effect of social support through resilience in the post-divorce Growth relationship. Based on the findings, the limitations of the study and suggestions for future research were discussed.

Key words : divorced women, attachment, post-divorce Growth, resilience, social support